

왕호응(王虎應) 일일 육효(2026년6월16일 웨이보 공개)

가게 안에 귀신(鬼神)이 있을까? (왕호응 씬)

이것은 제자(弟子)가 나에게 물었던 사례(事例)이다. 어떤 남자(男子)가 꿈속에서 자주 귀신을 보았는데, 가게 안에 귀신이 있는지 점(占)쳤다.

계묘년(癸卯年) 임술월(壬戌月) 임자일(壬子日) 정미시(丁未時) (순공(旬空): 인묘(寅卯))에,

뇌화풍(雷火豐)이 택천괘(澤天夫)로 변(變)하는 괘(卦)를 얻었다.

癸卯年 壬戌月 壬子日 丁未時

八卦

雷火豐(坎水宮) 之 澤天夫(坤土宮)

官丁未 || 白官庚戌 || 伏兄戊子
花鞍天 蓋馬月 閏馬災將

世父丁酉 | 蛇父庚申 || 世伏官戊戌
帳害鬼花 帳馬地 蓋馬月

兄丁亥 | 勾財庚午 | 伏父戊申
閏花劫喜亡 將馬災 帳馬地

官甲辰 | 朱兄己亥 | 伏財戊午
馬月蓋 閏花劫喜亡 將馬災

應孫甲寅空 | 青官己丑 || 應伏官戊辰
地馬 天花鞍 馬月蓋

兄甲子 | 玄孫己卯空 | 伏孫戊寅空
閏馬災將 花乙害 地馬

卦身: 官戌

世身: 三爻

空亡: 寅卯

세효(世爻)가 등사(騰蛇)에 임하니, 등사는 두려움이 되어, 괘주(卦主)가 두려워하고 놀라는 것을 주(主)한다. 이효(二爻)는 가게가 되는데, 원신(元神) 관귀(官鬼) 축토(丑土)가 이효에서 발동(發動)하여 공망(空亡)으로 화(化)하고 회두극(回頭剋)으로 화하니, 세효를 생(生)할 수가 없어 가게 안이 불안(不安)하고 자기(自己)에게 안전감(安全感)을 주지 못한다. 관귀 또한 귀신이 되는데, 세효를 생하니 사람을 해(害)치지는 않는다.

화해(化解) : 찻쌀 아홉 알을 동북(東北)쪽에서 동(東)쪽으로 치우친 방향(方向)에 두도록 했다. 나중에 한 움큼을 놓아 두었다. 다시는 꿈에 귀신이 나타나지 않았다.

‘증산복역’ 역자 ‘이두 김선호’ 필독 권장 자료
왕호응(王虎應) 일일 육효(2026년6월16일 웨이보 공개)

店里是否有鬼？（王虎应写）

这是徒弟问过我的一个案例。某男梦里经常看到鬼，占店里是否有鬼？于癸卯年壬戌月壬子日丁未时（旬空：寅卯），得雷火丰之泽天夬。

白虎	官鬼戌土”	
螣蛇	父母申金×世	父母酉金
勾陈	妻财午火’	
朱雀	兄弟亥水’	
青龙	官鬼丑土×应	子孙寅木
玄武	子孙卯木’	

世爻临螣蛇，螣蛇为害怕，主卦主害怕、惊恐。二爻为店，元神官鬼丑土在二爻发动，化空亡，化回头克，不能生世爻，店内不安，让自己没有安全感。官鬼也为鬼，生世爻不害人。

化解：9颗江米放东北偏东方向。后来放了一把。再没有梦见鬼。



출 처: <https://weibo.com/u/6819693315>
번 역: Gemini / 융(인스타: sangjun2495) (융선생 휴대폰: 010-5318-6999)
자 료: 고미승, 김정은, 김종윤, 안은선 등 **솔루션:** 오종현

왕호응(王虎應) 기인 고사(2026년6월16일 웨이보 공개)

소강절(邵康節) 전기(傳奇)

제6장 백원(百源)에서 도(道)를 깨달으니, 정좌(靜坐)하고 마음을 관찰(觀察)하여 조화(造化)를 통달(通達)하다

소옹(邵雍)은 이지재(李之才)로부터 선천(先天) 역학(易學)의 진전(真傳)을 온전(穩全)히 얻어 하락(河洛)의 본원(本源)과 선천 수리(數理)에 담긴 천고(千古)의 현기(玄機)를 꿰뚫어 보았으며, 이로써 수년(數年) 동안 학문(學問)을 닦을 적에 겪었던 병목 현상(現象)을 일거(一舉)에 씻어내었다. 그러나 대도(大道)의 진전을 얻었다고 해서 일시(一時)의 돈오(頓悟)만으로 완전(完全)해질 수는 없는 법(法)이며, 여전(如前)히 마음을 가라앉혀 가다듬고 정좌하여 체득(體得)하고 깨달아야만 비로소 스승이 전수 한 천도 수리를 진정(真正)한 자신의 골수(骨髓)와 본심(本心)의 지혜(智慧)로 승화(昇華)시킬 수 있었다. 당시(當時)의 소옹은 학문이 이미 도의 경지(境地)에 들었고 술법(術法) 또한 정종(正宗)의 위치(位置)에 올랐으나, 조금(躁急)하게 이름을 날리거나 명사(名士)들과 교유(交遊)하려 하지 않았으며, 역학의 수리(數理)로써 세속(世俗)의 명성(名聲)을 널리 취(取)하는 일을 조금도 유념(留念)하지 않았다. 그는 학문이 귀(貴)하게 여겨지는 바탕은 깊이 침전(沈澱)하는데 있고 대도가 귀하게 여겨지는 바탕은 정수(靜修)하는데 있음을 깊이 알았기에, 마침내 스승과 작별(作別)하고 공성(共城) 소문산(蘇門山)의 백원 땅을 택(擇)하여 은거(隱居)하며 폐관(閉關) 수련(修練)에 들어가 이승에서 가장 관건(關鍵)이 되는 오도(悟道)와 수심(修心)의 경지를 열어젖혔다.

소문산 백원은 산수(山水)가 맑고 그윽하며 샘물이 졸졸 흐르고 수풀이 울창(鬱蒼)하고 운무(雲霧)가 산간(山間)을 에워싸고 있어, 시정(市井)의 시끄러움과 인간(人間) 세상(世上)의 속세(俗世) 소란(騷亂)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었다. 이곳은 백갈래의 맑은 샘물이 쉬지 않고 흐르며 산세(山勢)가 평탄(平坦)하면서도 영기(靈氣)를 품고 있으며, 사시(四時)의 풍물(風物)이 질서(秩序) 정연(整然)하게 흘러가니 정좌하여 격물(格物)하고 하늘을 관찰하며 도를 깨닫기에 가장 마땅했다. 소옹은 이곳에 오두막을 짓고 거처(居處)하며 의식(衣食)을 극도(極度)로 간소(簡素)하게 유지(維持)하였으며, 세간(世間)의 화려(華麗)하게 들뜬 기운(氣運)을 깨끗이 쓸어내고 일체(一切)의 세속적인 응접(應接)과 인정(人情) 왕래(往來)를 완전(完全)히 끊어내어 고향 이웃의 사소(些少)한 일들을 묻지 않고 명사의 초대(招待)를 받지 않으며 세상이 다스려지고 어지러워지는 일들을 논(論)하지 않았다. 종일(終日)토록 청산(靑山)을 이웃으로 삼고 흐르는 물을 벗으로 삼으며, 시서(詩書)를 친구(親舊)로 삼고 역리(易理)를 마음으로 삼아, 모든 심신(心神)을 선천 역학을 미루어 펼치고 깊이 참구(參究)하는 일에 완전히 쏟아부었다.

당시 세상의 역학은 폐단(弊端)이 쌓인 지 이미 오래되어, 세속의 학문은 대개 술수(術數)와 복서(卜筮), 추길피흉(趨吉避凶)에만 치우치고 후천(後天)의 괘상(卦象)과 자질구레한 점단(占斷)에 집착(執着)하니, 이는 본(本)을 버리고 말(末)을 쫓는 일이며 술법을 무겁게 여기고 도를 가볍게 여기는 행태(行態)였다. 세상 사람들이 역학을 배울 적에는 오직 화복(禍福)을 미리 판단(判斷)하고 이익(利益)을 도모(圖謀)하며 해(害)를 피(避)하기만을 구(求)할 뿐, 역학의 본원이 바로 천지造化(天地造化)의 이치이자 만물(萬物) 운행(運行)의 질서이며 인간 세상의 치세(治世)와 난세(亂世)를 관통(貫通)하는 규율임을 전혀 알지 못했다. 소옹은 선천 정종의 전승

왕호응(王虎應) 기인 고사(2026년6월16일 웨이보 공개)

(傳承)을 얻었기에 이러한 폐단의 심각(深刻)함을 깊이 알고, 마침내 천년(千年) 동안 이어진 역학의 치우친 길을 바로잡아 본원으로 회귀(回歸)하기로 결심(結心)했다. 세속 역학의 허망(虛妄)한 공리(功利)를 부수어내고 근거 없이 끌어다 붙인 잡설(雜說)의 편파(偏頗)된 오류(誤謬)를 잘라내어, 상고(上古) 역학이 천인(天人)을 관통하고 만물을 포함(包含)하던 본래(本來)의 면목(面目)을 되찾아 주고자 결의(決意)했다.

백일(百日) 동안 폐관하고 수없이 호흡을 고요히 가다듬으며 정좌(靜坐)하여, 소용은 주야(晝夜)로 선천의 괘서(卦序)와 하락의 수리를 미루어 펼치고 사시의 흐름과 만물이 태어나고 죽는 이치를 대조(對照)해가며 천지조화의 저층(底層) 논리(論理)를 조금씩 정돈(整頓)해 나갔다. 선천의 괘서나 한가닥의 현묘한 조화에 결코 구애(拘碍)되지 않고, 선천 역학을 천도(天道)의 사시, 산천이 흘러 변하는 모습, 초목이 시들고 무성해지는 규칙, 추위와 더위가 번갈아 바뀌는 이치와 깊이 부합(符合)시켰다. 봄에 태어나는 것은 양(陽)이 자라는 것이요, 가을에 죽이는 것은 음(陰)이 성(盛)하는 것이며, 여름에 무성(茂盛)한 것은 극(極)으로 가득 차는 것이요, 겨울에 감추는 것은 근본(根本)으로 돌아가는 것이니, 사시가 순환(循環)하여 왕복(往復)하며 그치지 않음은 바야흐로 선천의 음양(陰陽) 소장(消長)과 진퇴(進退) 순환의 수리와 완벽(完美)하게 대응(對應)했다. 천지는 소리가 없으나 만상(萬象)으로써 대도를 연출(演出)하고, 역괘(易卦)는 말이 없으나 수리(數理)으로써 건곤(乾坤)을 정하니, 이러한 분명(分明)한 천도(天道) 운행을 증명(證明)하는 과정을 거치며 소용은 역학 본원에 대한 이해(理解)를 더욱 맑고 투명(透明)하게 다져갔다.

이러한 정수 속에서 소용은 평생(平生) 동안 학문을 닦고 도를 깨달을 핵심(核心) 종지(宗旨)를 정식(正式)으로 확립(確立)했으니, 곧 “이치(理)으로써 상(象)을 관찰하고, 수(數)으로써 미루어 펼치며, 마음으로써 도(道)를 깨닫는다”는 이치였다. 세상의 만상은 모조리 표상(表象)일 뿐이며 그 이면(裏面)에는 스스로 변하지 않는 의리(義理)가 존재(存在)하고, 천지의 변화(變化)는 모두 궤적(軌跡)이 있으니 그 궤적은 수(數)로써 미루어 펼치기 마련이며, 온갖 학문은 결국(結局) 외부(外部)에서 구하는 것보다 오직 마음을 고요히 하여 관심(觀心)해야만 비로소 천도에 부합하고 본원을 깨달을 수 있었다. 먼저 그 이치를 밝히고 다음에 그 상(象)을 관찰하며 뒤에 그 수(數)를 미루어 펼쳐야 한다고 주장(主張)했으며, 술법(術法)으로써 도(道)를 어지럽히지 않고 상(象)으로써 마음을 미혹(迷惑)하지 않게 하여 후세(後世)의 역학이 술법을 무겁게 여기고 이치를 가볍게 여기며 상(象)을 무겁게 여기고 마음을 가볍게 여기던 천년의 폐단을 철저(徹底)히 뒤집어 놓았으니, 이로써 역학 이 세속의 복서와 같은 소도(小道)로부터 천인을 관통하는 성현(聖賢)의 대도로 거듭나게 했다.

낮에는 오두막 앞에 정좌하여 구름이 피어나고 흩어지는 것을 보고 바람이 불어와 안개가 걷히는 것을 관찰하며, 초목이 싹을 틔우고 낙엽(落葉)이 뿌리로 돌아가는 것을 살펴 가며 가냘픈 물상 속에서 생생불식(生生不息)하고 성쇠(盛衰)가 왕복하는 규율을 깊이 탐구하여 깨달았다. 밤이 깊어지면 홀로 등불 아래 앉아 하락의 수와 선천의 괘변(卦變)을 미루어 펼치고 음양의 진퇴와 동정(動靜)이 상생(相生)하는 현묘(玄妙)함을 정돈했다. 고요함이 극에 달하면 움직임이 생겨나고 움직임이 극에 달하면 고요함으로 돌아가니, 음양은 서로 근거(根基)가 되고 성쇠는 서로 인과(因果)가 되며 만물은 영원(永遠)히 성함이 없고 영원히 쇠함이 없으며 세상 일은 영원히 순탄함이 없고 영원히 거스름이 없으니, 일체의 변화에는 모두 정해진 질서가 있고 일체의 흐름에는 모두 정해진 도수(度數)가 있는 법이었다. 지난날 독서(讀書)하며 얻은 것, 길을 걸으며 본 것, 스승을 뵈고 깨달은 것들이 모조리 백

왕호응(王虎應) 기인 고사(2026년6월16일 웨이보 공개)

원의 산수 간에 융합(融合)되어 하나로 귀결(歸結)되었다.

오랫동안 정좌하여 마음을 관찰하고 격물(格物)하여 도를 깨달으니, 소옹의 심성(心性)과 학문은 동시(同時)에 탈태(脫胎)하여 변화(變化)했다. 학문을 구하던 시절에 애타게 길을 찾던 초조한 마음을 벗어던지고 학문을 닦는 길 위의 의혹과 마음이 어디론가 얽매이는 일을 떨쳐내니, 심경(心境)이 더욱 텅 비고 투명해지며 담박(淡泊)하고 정정(靜定)해졌다. 득실(得失)에 집착하지 않고 이익(利益)과 폐단(弊端)에 갇히지 않으며 현묘함을 쫓지 않고, 오직 하나의 평상심(平常心)으로써 천지를 관찰하고 만물을 관찰하며 인간 세상을 관찰했다. 그는 천지의 조화가 본래 치우치게 사랑하는 법이 없고 음양의 소장은 본래 자연(自然)스러운 일이며, 성함이 극에 달하면 반드시 쇠하고 막힘이 극에 달하면 태평(太平)이 찾아오는 전형이 만물 운행의 철률(鐵律)이자 인간 세상이 변천(變遷)하는 상도(常道)라고 차츰 깨달아갔다. 작게는 초목과 벌레와 물고기가 태어나고 죽는 일로부터 크게는 왕조(王朝)와 집안의 흥쇠(興衰)에 이르기 까지, 단 하나도 이 도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수년 동안 백원에서 은거(隱居)하며 고락(苦樂)을 다한 수련(修練)을 거친 끝에, 소옹은 선천 역학의 진전을 온전히 녹여내어 자신의 것으로 만들고 고금(古今) 학문이 지닌 문호(門戶)의 질곡(桎梏)과 인지(認知)의 국한(局限)을 뛰어넘었다. 더 이상 단순(單純)히 서책이 전하는 도에 의지하거나 스승이 전수(傳授)해 준 업(業)에 얽매이지 않고, 마음으로써 도에 합(合)하고 도로써 학문을 다스려 천도, 수리, 물리(物理), 인사(人事)를 남김없이 통달(通達)하여 일체로 융합했다. 이리하여 그는 더 이상 단순하게 학문을 구하는 사람이나 기술(技術)을 배우는 선비에 머물지 않고, 이미 자신만의 독립적인 사유와 치학(治學) 체계(體系), 그리고 오도(悟道)의 격국(格局)을 소유(所有)하게 되었으니, 독보적(獨步的)이며 천인을 관통하고 만상을 포괄(包括)하는 강절(康節) 역학 체계를 초보적(初步的)으로 구축(構築)해 내었다.

백원의 산수가 그 심성을 길러주었고 선천의 역리가 그 근기를 정해주었다. 이번의 폐관 오도는 소옹이 널리 배워 성취(成就)를 이루는 단계로부터 도를 깨달을 뿐만 아니라 대성(大成)의 경지로 나아가는 중대(重大)한 전환점(轉換點)이었다. 세속 역학의 허망한 불순물(不純物)을 말끔히 씻어내고 상고 대도의 순수(純粹)한 참된 본모습을 지켜내었으며, 담박한 마음으로 천지조화를 관찰하고 환히 꿰뚫어 보는 지혜로 만물의 현기를 살펴, 훗날 안빈수도(安貧守道)하고 세운(世運)을 미루어 펼치며 책을 저술(著述)하고 세상을 교화(教化)하는 거룩한 대도의 근기를 견고(堅固)히 다져 놓았다.

第六章 百源悟道，静坐观心通造化

邵雍尽得李之才先天易学真传，勘破河洛本源、先天数理的千古玄机，一扫多年治学瓶颈。然大道求得真传，非一时顿悟便可圆满，仍需沉心炼化、静坐体悟，方能将师父所授天道数理，真正化为己身骨血、本心智慧。彼时的邵雍，学已入道、术已正宗，却不愿急于扬名立论、结交名士，更不屑以易学数理博取世俗声名。他深知学问贵在沉淀，大道贵在静修，遂辞别师长，择共城苏门山百源之地隐居闭关，开启了此生最为关键的悟道修心之境。

苏门山百源，山水清幽，泉流潺潺，林木葱郁，云雾萦绕山间，远离市井尘嚣、人

왕호응(王虎應) 기인 고사(2026년6월16일 웨이보 공개)

间纷扰。此地清泉百道、生生不息，山势平缓而藏灵气，四时风物流转有序，最宜静坐格物、观天悟道。邵雍于此结庐而居，极简衣食、摒尽繁华，彻底断绝一切世俗应酬、人情往来，不问乡邻琐事、不接名士邀约、不议世间治乱。终日以青山为、流水为伴，以诗书为友、易理为心，将全部心神尽数投入先天易学的推演与参悟之中。

彼时世间易学，积弊已久，流俗之学多偏于术数卜筮、趋吉避凶，执着于后天卦象、细碎占断，舍本逐末、重术轻道。世人学易，只求预判祸福、谋利避害，却不知易学本源，乃是天地造化之理、万物运行之序、人世治乱之规。邵雍得先天正宗传承，深知此弊之重，遂立心修正千年易学偏途，拨乱反正、回归本源。他决意剥离世俗易学的虚妄功利，斩断附会杂说的偏颇谬误，还上古易学贯通天人、涵盖万物的本来面目。

闭关百日，静坐千息，邵雍日夜推演先天卦序、河洛数理，对照四时流转、万物生灭，一点点梳理天地造化的底层逻辑。他不再拘泥于一卦一象的吉凶断语，而是将先天易学与天道四时、山川流变、草木枯荣、寒暑更迭深度契合。春生为阳长、秋杀为阴盛、夏盛为极满、冬藏为归根，四时轮转、往复不息，恰与先天阴阳消长、进退循环的数理完美对应。天地无声，却以万象演大道；易卦无言，却以数理定乾坤，这般通透印证，让邵雍对易学本源的理解愈发澄澈。

于此静修之中，邵雍正式确立自己一生治学悟道的核心宗旨：以理观象、以数推演、以心悟道。世间万象皆为表象，背后自有不变义理；天地变化皆有轨迹，轨迹可由数理推演；万般学问终究外求，唯有静心观心，方能契合天道、悟透本源。他主张先明其理、再观其象、后推其数，不以术乱道、不以象迷心，彻底扭转了后世易学重术轻理、重象轻心的千年弊端，让易学从世俗卜筮小道，重回贯通天人的圣贤大道。

白日里，他静坐庐前，观云卷云舒、风来雾散，察草木抽芽、叶落归根，于细微物象中参悟生生不息、盛衰往复的规律。夜幕时，他独坐灯下，推演河洛之数、先天卦变，梳理阴阳进退、动静相生的玄妙。静极生动、动极归静，阴阳互为根基、盛衰互为因果，万物无恒盛、无恒衰，世事无恒顺、无恒逆，一切变化皆有定序、一切流转皆有定数。往日读书所得、行路所见、拜师所悟，尽数在百源山水间交融归一。

长期的静坐观心、格物悟道，让邵雍的心性与学问同步蜕变。褪去求学之时的求索焦灼，抛开治学路上的疑惑牵绊，心境愈发空明澄澈、淡泊静定。不执得失、不困利弊、不逐玄妙，以一颗平常心观天地、观万物、观人世。他渐渐勘破，天地造化从无偏爱，阴阳消长本是自然，盛极必衰、否极泰来，既是万物运行的铁律，亦是人世变迁的常道。小至草木虫鱼的生灭，大至王朝家国的兴衰，无一能跳出此道。历经数载百源闭关苦修，邵雍彻底炼化先天易学真传，跳出古今治学的门户桎梏与认知局限。不再单纯依凭书本传道、师长授业，而是以心合道、以道御学，将天道、数理、物理、人事完全打通、融为一体。至此，他不再是单纯的求学之人、学艺之士，已然拥有了属于自己的独立思维、治学体系与悟道格局，初步构建起独一无二、贯通天人、囊括万象的康节易学体系。

百源山水养其心性，先天易理定其根基。此番闭关悟道，是邵雍从“博学有成”走向“悟道大成”的关键转折。他洗尽世俗易学的虚妄杂质，守住上古大道的纯粹本真，以淡泊之心观天地造化，以通透之智察万物玄机，为日后安贫守道、推演世运、著书立说、教化世人，筑牢了最核心、最纯粹的大道根基。

'증산복역' 역자 '이두 김선호' 필독 권장 자료
왕호응(王虎應) 기인 고사(2026년6월16일 웨이보 공개)



출 처: <https://weibo.com/u/6819693315>
번 역: Gemini /웅(인스타: sangjun2495) (웅선생 휴대폰: 010-5318-6999)
자 료: 고미승, 김정은, 김종윤, 안은선 등 솔루션: 오종현

왕호응(王虎應) 민간 고사(2026년6월16일 웨이보 공개)

태원(太原) 인물(人物) 전기(傳奇)

곽회전(郭淮傳)

곽회(郭淮)는 자(字)가 백제(伯濟)이며 병주(并州) 태원(太原) 양곡(陽曲) 사람으로, 조위(曹魏) 사직(社稷)의 명장(名將)이자 서(西)쪽을 진수(鎮守)한 중신(重臣)이다. 곽씨(郭氏) 가문(家門)은 대대(代代)로 태원에 거주(居住)한 병주의 망족(望族)으로, 세대(世代)마다 무예(武藝)를 숭상(崇尚)하여 자제(子弟)들이 대부분 충성심(忠誠心)과 용맹(勇猛)으로써 입신(立身)하였다. 곽회는 한(漢)나라 말기(末期)의 난세(亂世)를 만나 천하(天下)가 무너지고 군웅(群雄)이 할거(割據)하며 중원(中原)에 전란(戰亂)이 끊이지 않던 시절(時節)에 태어났는데, 당시(當時) 서북(西北)쪽의 강(羌)과 저(氐) 등 오랑캐가 자주 변방(邊方)을 침범(侵犯)하여 옹주(雍州)와 양주(涼州) 땅은 일 년(一年) 내내 몹시 흔들리고 불안하였다. 곽회는 젊어서부터 원대(遠大)한 뜻을 품어 침착(沈着)하고 굳세며 계책(計策)이 많았고, 허황(虛荒)되고 부침성 있는 교유(交遊)를 좋아하지 않았으며 오직 병법(兵法)의 대략(大略)에만 잠심(潛心)하여 산천(山川)과 관애(關隘)의 험준(險峻)함을 고찰(考察)하고 변강(邊疆)을 공수(攻守)하는 도리(道理)에 깊이 통달(通達)하였다. 건안(建安) 연간(年間)에 효렴(孝廉)으로 천거(薦舉)되어 관직(官職)에 나아가 처음에는 군승(郡丞)이 되었는데, 정무(政務)를 다스리는 데에 성실(誠實)하고 엄격(嚴格)하였으며 사리(事理)를 처리(處理)하는 것이 공평(公平)하여 관직에 처음 들어설 때부터 이미 세상(世上)을 다스리고 군대를 통솔(統率)하는 재능(才能)을 드러내어 상관(上官)에게 무겁게 쓰였다.

조위가 건국(建國)하자 옹주와 양주는 변방의 방위(防衛)를 담당(擔當)하는 중진(重鎮)이 되어 밖으로는 오랑캐를 막고 서쪽으로는 촉한(蜀漢)을 막아내느라 전쟁(戰爭)이 해마다 그치지 않았다. 곽회는 오랜 세월(歲月) 동안 서쪽 변방을 진수하며 옹주사(刺史)와 정서장군(征西將軍)을 역임(歷任)하고 옹주와 양주의 제반(諸般) 군사(軍事)를 도독(都督)하여 홀로 한 방면(方面)을 책임졌으며, 조위의 서쪽 국경(國境)을 수십 년(數十年) 동안 굳건히 지켰다. 그의 용병술(用兵術)은 깊고 신중하여 형세(形勢)를 잘 살폈고 적정(敵情)의 허실(虛實)을 꿰뚫어 보았으며, 진법(阵法)의 정(定)해진 격식(格式)에 구애(拘碍)되지 않고 언제나 지형(地形)에 따라 방책(方策)을 세우고 먼저 기틀을 예단(預斷)함으로써 승리(勝利)를 거두었다. 제갈량(諸葛亮)이 여러 차례 북벌(北伐)을 감행(敢行)하여 자주 기산(祁山)으로 나와 옹주와 양주를 침탈(侵奪)할 적마다, 곽회는 큰 전투(戰鬪)에 임(臨)할 때마다 시세(時勢)를 헤아려 판단(判斷)하고 험준(險峻)함에 의지(依支)하여 굳게 지켰으며 기척에 따라 기민(機敏)하게 대처(對處)하여 매번(每番) 촉(蜀)나라 군대의 북벌 계책(計策)을 좌절(挫折)시켰으니, 이로써 서쪽 변방의 강토(疆土)를 보전(保全)하고 조위의 변방 수비를 확고(確固)하게 다졌다. 촉나라 군대가 몇 차례나 진병(進兵)하고도 모두 공로(功勞) 없이 돌아간 것은 전적(全的)으로 곽회가 군대를 적절(適切)히 조율(調律)하고 수비(守備)를 주밀(周密)하게 세운 덕분(德分)이었다.

곽회는 전쟁을 잘 수행(修行)했을 뿐만 아니라, 특히 변방의 백성들을 위무(慰撫)하고 이족(異族)을 안정(安定)시키는 일에 뛰어났다. 옹주와 양주 땅은 여러 오랑캐 부족(部族)이 섞여 살아 민풍(民風)이 사납고 억했으므로 자주 반란(叛亂)이 일어나 연이어 소란(騷亂)스러웠다. 곽회가 이곳을 진수하면서 은혜(恩惠)와 위엄(威嚴)을 함께 베풀어 토벌(討伐)하고 안민(安民)을 병행(並行)하였고, 이족들을 회유(懷柔)하며 부

왕호응(王虎應) 도서 소개(2026년6월16일 웨이보 공개)

《추명서(推命書)》21

일본어판(日本語版) 《추명서(推命書)》는 앵전호문(櫻田虎門, 사쿠라다 코몬)의 저작(著作)이다. 이 사람은 센다이번(仙台藩)의 유학자(儒學者)로 호(號)는 고부자(鼓缶子)이며, 역학(易學)과 오행학(五行學)을 겸하여 연구했다. 앵전호문의 《추명서》는 일본 문정(文政) 연간(年間, 약 1818년)에 간행(刊行)된 최초로 체계적(體系的)으로 중국(中國)의 사주추명(四柱推命)을 번역하여 소개한 전문서이다. 서승(徐升)의 《연해자평(淵海子平)》을 저본(底本)으로 삼아, 일본식 선장본(線裝本) 상·중·하 삼권본(三卷本) 형태로 채택(採擇)하였으니, 일본 사주추명의 초석을 다진 문헌(文獻)이다. 동시에 저자(著者)가 명리(命理)를 전문적으로 정통한 것이 아니었기에, 번역의 정밀도와 체계의 부합 면에서 역사적(歷史的) 한계가 존재한다.

학술맥락: 강호(江戶) 중기(中期)에 중국의 사주추명이 일본으로 전해졌고, 앵전호문은 자신(自身)의 유학과 역학 및 오행학적 축적을 결합(結合)하여 최초로 체계적인 번역 소개를 완성(完成)하였다. 아울러 최초로 "단역(斷易)"을 "오행역(五行易)"이라 명명(命名)함으로써, 후속(後續) 일본 추명학 발전(發展)의 전문 용어(用語) 기초를 확립하였다.

역사의의: 일본 추명학의 시조(始祖) 작품으로 사주(四柱: 년, 월, 일, 시), 간지(干支), 오행 등 핵심틀을 명확(明確)히 하였으며, 명리 술수(術數)가 민간으로부터 학술적 시야(視野)로 들어오도록 추동(推動)하였다. 명치(明治) 이후 송본의량(松本義亮) 등의 학자들이 이 기초 위에서 "사주추명"이라는 명칭을 확립하였다. 연재(連載) 중 스물 한 번 째.

日文版《推命書》是櫻田虎門(さくらだこもん)的著作。此人为仙台藩儒学者，号鼓缶子，兼治易学与五行学。櫻田虎門的《推命書》是日本文政年間(約1818

年)刊行的首部系統譯介中國四柱推命的專著，以徐升《淵海子平》為底本，採用和刻線裝上中下三卷本形制，是日本四柱推命的奠基文獻，同時因作者非專精命理，存在翻譯精度與體系适配的歷史局限。

學術脈絡：江戶中期中國四柱推命傳入日本，櫻田虎門結合自身儒易與五行學積累，完成首部系統譯介，首次將“斷易”命名為“五行易”，為後續日本推命學發展奠定術語基礎。

歷史意義：是日本推命學的开山之作，明确了四柱(年、月、日、时)、干支、五行等核心框架，推动命理术数从民间传入学术视野，明治后松本义亮等学者在此基础上确立“四柱推命”名称。連載之二十一。

'증산복역' 역자 '이두 김선호' 필독 권장 자료
왕호응(王虎應) 도서 소개(2026년6월16일 웨이보 공개)



왕호응(王虎應) 제자 사례(2026년6월16일 웨이보 공개)

어머니의 신체(身體)가 좋지 않다 @王淵Yzfs

오월(午月) 기사일(己巳日) (술해(戌亥) 공망(空亡)), 한 사람이 어머니의 병(病)을 점(占)쳐서, 뇌화풍(雷火豐)이 지화명이(地火明夷)로 변(變)하는 괘(卦)를 얻었다.

癸卯年 戊午月 己巳日

八卦

雷火豐(坎水宮) 之 地火明夷(坎水宮)

父癸酉 <small>帳害鬼將</small>	勾官庚戌空	伏兄戊子 <small>閏馬災乙害</small>
兄癸亥空 <small>閏花劫德馬</small>	朱父庚申	世伏官戊戌空 <small>蓋花鞍</small>
世官癸丑 <small>天蓋</small>	青財庚午	伏父戊申 <small>帳馬乙亡</small>
兄己亥空 <small>閏花劫德馬</small>	玄兄己亥空	伏財戊午 <small>將花</small>
官己丑 <small>天蓋</small>	白官己丑	應伏官戊辰 <small>馬月天</small>
應孫己卯 <small>花喜馬災</small>	蛇孫己卯	伏孫戊寅 <small>地花劫</small>

遊魂卦
空亡: 戌亥

卦身: 官戌
世身: 三爻

부모(父母)를 용신(用神)으로 삼는다. 일월(日月)이 모두 와서 용신을 극(克)하고, 괘(卦) 안의 기신(忌神)이 또 동(動)하여 와서 극제(克制)하니 용신이 매우 약하여, 그의 어머니 신체(身體)가 매우 좋지 않음을 설명한다.

화(火)가 사효(四爻)에서 극(剋)하니 심장(心臟)이 좋지 않다. 육효(六爻) 원신(元神)이 공망(空亡)이라 용신을 생(生)하지 못하니 두부(頭部)에도 질환(疾患)이 있다. 구진(勾陳)이 임(臨)하니 구진은 지완(遲緩)의 상(象)이 되어 치매(癡呆)의 정보를 의미한다. 용신은 금(金)이 되고 주작(朱雀)이 임(臨)하여 소리를 주하는데, 극을 받으니 실어(失語)를 겪거나 언어(言語) 소통이 매끄럽지 못

하다.

일(日)이 기신이 되어 극하면서 용신을 합주(合住)하니, 일합(日合)은 반주(絆住)가 되어 질병(疾病)이 얽매여 몸에 감기는 정보인데, 용신이 오효(五爻)에서 합(合)되었으니, 오효는 도로(道路)가 되고, 일합은 반주라서, 보행(步行)할 수 없는 정보를 의미한다.

실제(實際) 상황(狀況)은 그의 어머니가 심장병(心臟病)과 노년기(老年期) 치매증이 있었고, 언어 기능이 유창(流暢)하지 못하고 행동(行動)이 불편(不便)하였다.

‘증산복역’ 역자 ‘이두 김선호’ 필독 권장 자료
왕호응(王虎應) 제자 사례(2026년6월15일 웨이보 공개)

@王渊Yzfs: 母亲身体不好

午月己巳日(戌亥), 一人测母病得, 雷火丰变地火明夷卦。

勾陈 官鬼戌土"
朱雀 父母申金"世
青龙 妻财午火○ 官鬼丑土
玄武 兄弟亥水'
白虎 官鬼丑土"应
螣蛇 子孙卯木'

以父母为用神。日月都来克用神。卦中忌神又动来克制，用神非常弱，说明他母亲身体很不好。

火在四爻来克，是心脏不好。六爻元神空不生用，是头上也有毛病。临勾陈，勾陈为迟缓之象，是痴呆的信息。用神为金，临朱雀主声音，受克是不会说话或说话不利索。

日为忌神克而合住用神，日合为绊，是疾病缠身的信息，用神在五爻被合，五爻为道路，日合绊住，是不能走路的信息。

实际情况是他母亲有心脏病和老年痴呆症，说话不灵活，行动不便。



출 처: <https://weibo.com/u/6819693315>
번 역: Gemini /응(인스타: sangjun2495) (응선생 휴대폰: 010-5318-6999)
자 료: 고미승, 김정은, 김종윤, 안은선 등 솔루션: 오종현

‘증산복역’ 역자 ‘이두 김선호’ 필독 권장 자료
왕호응(王虎應) 일일 감상(2026년6월16일 웨이보 공개)

자료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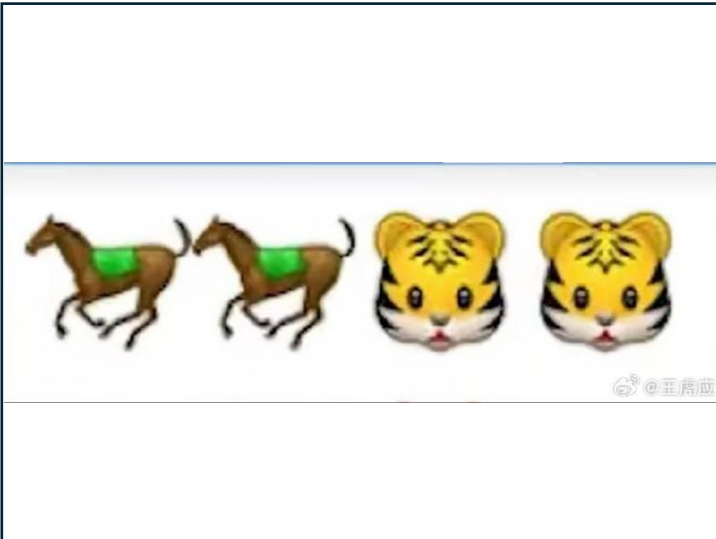


그림 보고
성어(成語) 맞히기

당신의 성어에 대한
이해력을 시험해 보세요!
이 그림들이 어떤 성어를
나타내는지 맞춰보세요.
사고력을 넓히고
훈련하세요!

출 처: <https://weibo.com/u/6819693315>
번 역: Gemini /응(인스타: sangjun2495) (응선생 휴대폰: 010-5318-6999)
자 료: 고미승, 김정은, 김종윤, 안은선 등 솔루션: 오종현